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6 권 92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미 사 성 가	입당 (436)	봉헌 (216)	성체 (168)	파견 (227)
---------	----------	----------	----------	----------

2017 년도 구역 및 구역원 명단

1 구역 : 장 글라라(구역장), 유 요한, 유 마리아, 오 베드로, 오 루시아, 손 아놀드, 손 쟈마, 최 요안나, 최 마태오, 이 요한, 이 마틸다, 이 그레이스, 이 데레사, 전 제노베파, 김 안드레아, 김 마르타, 황 가롤로

2 구역 : 김 유스티나(구역장), 김 마론, 김 헬레나,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김 글라라, 홍마르코, 홍아네스,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이 글라라, 이 안젤라, 김 요아킴, 고 안나, 김 유스티노

제1독서 | 말라 1,14ㄴ-2,2ㄴ.8-10

화답송 | 시편 131(130),1.2.3

- ◎ 주님, 제 영혼을 당신의 평화로 지켜 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은 오만하지 않나이다. 제 눈은 높지도 않사옵나이다. 감히 거창한 것을 따르지도, 분에 넘치는 것을 찾지도 않나이다. ◎
- 오히려 저는 제 영혼을 다독이고 달랬나이다. 제 영혼은 마치 젖뎀 아기, 어미 품에 안긴 아기 같사옵나이다. ◎
- 이스라엘아, 주님을 고대하여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

제2독서 | 1테살 2,7ㄴ-9.13

복음환호송 | 마태 23,9.10 참조

- ◎ 알렐루야.
-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시고, 너희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 뿐이시다. ◎

복음 | 마태 23,1-12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0/29	이 그레이스	이 바오로 /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11/5	이 마틸다	이 요한 / 김 헬레나	박 다니엘
11/12	이 그레이스	이 바오로 /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11/19	이 마틸다	이 요한 / 김 헬레나	박 다니엘

영어독서: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차 봉헌	교무금
10/29	\$181		\$30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0/21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11/25	손 아놀드/ 손 잼마
10/28	장 글라라/ 이 테레사	12/2	김 헬레나/ 박 세라피나
11/4	황 가롤로/ 김 안드레아	12/9	이 글라라/ 김 글라라
11/11	오 베드로/ 오 루시아	12/16	이 안드레아/ 이 안젤라
11/18	김 마론/ 최 마태오	12/23	이 요한/ 이 마틸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안내: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

다음 성체조배는 11월 2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둘째주 일요일 오후 7시

이번 임원회의는 사정으로 인하여 11/19/17 오후 7시로 이동합니다. 임원께서는 참고하시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사제관 입니다.

11월 5일 하마이카 가을축제에 Raffle Ticket 판매

티켓은 (5장에 \$25) 이요한 총무님께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1등\$2,000 2등\$1,000 3등\$500 외 푸짐한 상품이 준비됩니다.

로사리오 성월 - 목주기도

로사리오 성월을 맞이하여 미사 30분전 목주기도를 드립니다. 형제 자매님께서는 30분 일찍 오시어 한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1월은 위령성월 입니다.

비치된 위령성월 봉투에 돌아가신분의 본명을 적어 봉헌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기도 성가 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8:30

지난 화요일 기도 성가 모임에 참석해 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문의: 박 바오로 (661-342-7130)

모임 장소: 10907 Prairie Stone Pl, Bakersfield. CA 93311

말씀의 이삭

아버지 말씀처럼

김성면 루카-가수-

기도를 드리다가 말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땅거미 지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데, 투병 중이신 아픈 아버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스물두 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병환이 깊어진 친할머니까지 모시느라 어머니마저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쇠약해진 부모님과 대입 준비하는 두 동생에게 저는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던 터라 그 책임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벅겁게 느껴졌습니다. 누구에게 내색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장남으로서 오롯이 제가 짊어져야 할 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고 모든 게 두렵기만 했습니다. 슬픔에 빠져있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엔 현실적 압박이 너무나 컸습니다.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느님이니 겁내지 마라. 내가 너의 힘을 북돋우고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이사 41,10) 기도를 하면서도 저는 ‘정말일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만큼 절실하게 하느님을 찾았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형식적으로 성당을 오갈 뿐 조금씩 냉담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탕자의 심정으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을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신다.”(시편 145,18) 깊은 뜻을 모두 헤아릴 수 없으나 저는 그렇게 언제 어디서든 하느님이 함께하시리라 믿고 또 믿었습니다. 그러자 혼란과 두려움이 서서히 잦아들고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필리 4,6) 저는 동생들에게 과학과 철학을 논하며 성경 구절을 들려주었습니다. 말씀 안에는 사랑과 믿음이 스며있었고 저희 가족을 위로하고 울곧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동생들이 신앙을 갖는 데 도움이 되었고 개신교 권사님이셨던 친할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대세를 받으시고 마리아라는 세례명을 얻으셨습니다. 현실은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병환 중에 계시고 어머니도 늙고 약해지셨습니다. 가끔 예기치 않은 고난과 슬픔에 삶이 힘겹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통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족들이 하느님 안에서 서로를 보듬게 된 것만으로도 더없이 감사하고 제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오늘도 저는 아버지와 대화하듯 하느님을 불러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서울주보에서>

살고 사랑하고 믿으십시오!

-프란치스코 교황-